

지방자치·종합

커피값 아껴 통일 준비하는 고흥 사람들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이른바 '통일 향아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고흥 군민들이 지난 3년여 동안 통일기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2000여만원을 모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사평화통일국민포럼 주최 '통일준비 국민운동' 전국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2008년 전국 첫 통일기금 모으기 발기대회 주민들 3년여간 2000만원 십시일반 모금

부터. 그는 옛 서독 국민이 자발적으로 통일기금을 모은 것이 독일 통일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백 원장의 설명에 크게 공감했다. 이후 2008년 8월 우체국에 통일기금 통장을 개설한 김씨는 하루에 한잔의 커피값을 아껴 통일을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있다. 김씨가 통장을 개설한 8월29일은 1910년 대한제국이 통치권이 일

제에 넘어간 국지일, 민족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마음에 그날에 맞춰 통장을 개설했다. 통장이 개설되자 고흥에는 통일기금 조성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주민이 하나둘씩 늘었고, 김씨를 포함한 한잔의 커피값을 아껴 통일을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있다. 김씨가 통장을 개설한 8월29일은 1910년 대한제국이 통치권이 일

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 김씨는 "경로당의 노인과 초등학교들도 통일기금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통일이라는 꿈을 갖고 조금씩 노력하면 통일은 가까이 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씨는 현재 법국민적인 통일준비 운동을 펼치는 (사평화통일국민포럼)에서도 이사로서 통일기금 모으기 운동에 힘쓰고 있다.

(사평화통일국민포럼) 관계자는 "고흥 주민들이 통일기금 운동의 씨앗을 뿌렸다"며 "통일기금 통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작동기자 gju@



에이즈 예방할 수 있어 UN과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 대한적십자 광주지사 및 대한에이즈협회 광주·전남지회 직원들이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광장에서 에이즈 감염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염전 주변 가축 사육·농약 금지

전남도, 10대 수칙 마련 친환경 천일염 위생관리 강화

전남도는 전국 생산량의 87%에 이르는 도내 천일염의 위생 및 안정성 문제를 강화하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고급화 추세에 맞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면서 고급화 및 브랜드 불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안전적 정착을 위해 취업 장려금 지원, 안정적 취업 등 자립과 자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다고 일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친환경 천일염 생산 10대 수칙'을 마련해 신안·영광·무안 지역 천일염 사업장과 생산자들에게 적극 준수토록 유도한다. 10대 수칙은 ▲염전과 해주, 소금창고의 위생 관리 철저 ▲염전 주변 가축 사육·농약·흡연 금지 ▲외부인 무단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아울러 해주·소금창고의 슬레이트 지붕과 염전 바닥 등을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염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자의 조직화·규모화,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확대 등에도 지속적인 쉼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천일염은 씻지않고 직접 섭취하기 때문에 염전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 전남산 천일염이 세계적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거주 새터민 절반 北 가족에 돈 송금

김재기 전남대교수 조사

광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절반 이상이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김재기 교수는 1일 조선대에서 열린 '한국 남북통일과 국제경제' 세미나에서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조사보고서'를 통해 새터민 80%가 북한에 가족을 평균 5.5명 가량 남겨두고 있고 절반 이상이 이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9월부터 두달동안 광주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새터민 18명을 대상으로 북한 생활, 탈북이동

를 통해 새터민 80%가 북한에 가족을 평균 5.5명 가량 남겨두고 있고 절반 이상이 이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9월부터 두달동안 광주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새터민 18명을 대상으로 북한 생활, 탈북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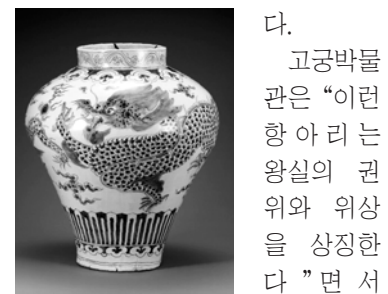
루트, 광주 생활, 북한 가족과의 연계 등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했다. 이들의 70%는 북한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광주를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로 따뜻한 날씨, 전라도 음식, 학업, 소비가 낮은 도시 등으로 다양했다. 김 교수는 5·18을 알고 난 후 광주

가 인권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돼 선택했다는 응답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들 가운데 50% 잘 적응한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8명은 여성으로 직장·학업, 육아 병행 등 상충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들은 단순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의 상당부분을 북한에 보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안전적 정착을 위해 취업 장려금 지원, 안정적 취업 등 자립과 자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금호석화, 도자기 백자청화운통문호 기증

檢,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전 영장 청구

문화재청은 금호석화화학(회장 박찬구)으로부터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도자기인 백자청화운통문호(白磁靑畫龍雲龍文)를 기증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증품은 의궤라든가 궁중기록화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궁중의 여러 의식 행사 때 임금이나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상징한다"면서 "특히 이번 기증품은 다서 개 발톱을 힘차게 펼쳐 여의주를 쫓는 박진감 넘치는 용모습을 생생히 표현한 18세기 후반의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기증품은 다서 개 발톱을 힘차게 펼쳐 여의주를 쫓는 박진감 넘치는 용모습을 생생히 표현한 18세기 후반의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찬구(63) 금호석화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등과 주식 투자를 하고자 사전에 금호석화 회장 전랑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 회장은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금호석화화학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이를 뒤에 실질심사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회장은 내주 초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4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사과 거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연말 예산 몰아쓰기 집행 말라"

피랍 '제미니호' 석방 한국선원 4명만 석방

전남도, 시군에 지시

전남도는 최근 22개 시·군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연말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시했다. 매년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계획된 예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보도 블록 교체나 불요불급한 워크숍 개최 등에 사용하는 등 '밀어내기식'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는 또 시·군의 예산 몰아쓰기 행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관리에 나서는데,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겨울철에 저지 절 약 방산 및 서민 생활 안정 대책에도 적극적일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4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제미니호(GEMINI)'호와 대다수 선원이 협상을 통해 풀려나지만 한국인 선원은 계속 억류된 상태라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아랍민국의 여병 작전 당시 생포된 해적 석방 등을 요구하는 이들 해적은 선사와의 약속을 깨고 한국인 선원 4명만 내륙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피랍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임야/전답.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임야/전답.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임야/전답.

광주 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석